



KAGES NEWSLETTER

WWW.KAGES.ORG

한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

발행인: 윤혜진 편집: 이지은

From the President	1	KAGES Mentoring Program	7
Special Contribution I	2	KAGES Awards & Scholarships	9
Special Contribution II	3	IJGER	9
Special Contribution III	4	KAGES 2021 Annual Meeting	10
Special Contribution IV	5	Members' News	10
Special Contribution V	6	About KAGES	11

From The President

회장 인사말



KAGES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올해의 2021 KAGES 총회에 앞서서 이렇게 미리 지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KAGES 총회는 줌 화상 미팅으로(Zoom Meeting Room ID: 978 6377 1554, Passcode: 2021) 4 월 9 일 서부시간 저녁 6 시 30 분부터 7 시 30 분 (한국시간 4 월 10 일 오전 10 시 30 분-11 시 30 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 학회의 웹사이트 및 공식 트위터 계정도 공고가 나가고 있으니 비록 이전과 같은 대면 형식의 총회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학회와 관련된 각종 장학금 수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지리학회(The Korea Geographical Society: KGS) Student Paper Award 와 IJGER 의 신진 학자 논문 상이 수여될 예정이고, 또한 다음 해에 수고해 주실 회장단을 선출하는 자리도 마련되니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차기 회장단 선출에도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장학금 선정에 리뷰어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과 후원을 해주신 대한지리학회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총회 전 학생 회원님들이 연구 발표가 진행되는 Young Korean Geographers Forum 이 총회와 같은 날인 4 월 9 일 서부시간 오후 3 시 05 분부터 5 시 25 분까지 두 세션으로(AAG Virtual Room 16) 나누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학생 회원 여러분들께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나뉘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후에 학생 회원 여러분과 일선에 계신 일반회원님들과의 멘토링 세션도(Zoom Meeting Room ID: 978 6377 1554, Passcode: 2021) 조인정 부회장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 중이시니 또한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그리고 총회 말미에는 참석하여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회 경품 추첨 행사는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올 한해 KAGES 에서는 학생 회원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네트워킹 및 커리어 개발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생 소모임 지원공고를 드렸고, 이미 몇 분들이 좋은 뜻을 모아서 제 1 호 학생 소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식지의 KAGES Members News 참조).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소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KAGES 는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유학생생활 하고 계신 학생 회원 분들께서 보다 격의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을 성의를 다하여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AAG 미팅 중의 포럼, 멘토링 세션, 그리고 총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십시오(yoon3@uwm.edu). 그러면 여러분들을 뵙기를 앙망하며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윤혜진 드림

Dear KAGES members and sponsors,

The KAGES general meeting will be held via Zoom virtual meeting (Zoom Meeting Room ID: 978 6377 1554, Passcode: 2021) on the 9th of April from 6:30 pm to 7:30 pm (PST). Please check the details of the general meeting are posted on this newsletter, the KAGES website, and the official KAGES Tweeter account. We would like to see everyone in the general meeting via Zoom this year.

I truly appreciate all the scholarship reviewers who contributed to the selection of the scholarship this year and congratulate two awardees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KGS) Paper Award and IJGER this year. The award ceremonies for KGS Paper Award and the IJGER early career paper award as well as the election are scheduled during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KAGES organizes two sessions, Young Korean Geographers Forum I & II where the student presenters present their research on the 9th of April from 3:05 pm to 5:25 pm (PST) in the AAG virtual room 16. So, please attend and provide constructive comments on their presentations. Injeong Jo, the vice-president of KAGES, organizes the mentoring sessions between the general members and the student members to enhance networking between the forums and the general meeting. Last but not least, a raffle event is also scheduled at the end of the general meeting to thank you who attend our general meeting. Please do not miss such a wonderful event. I appreciate support from KSEA for the raffle event at the general meeting this year.

To enhance the students networking and career development, KAGES has begun facilitating the students' group activities among the student members, and as a result, the very first student group, Future for Women Geographers, has been approved. KAGES does its best to support the students group activities for the student members.

Lastly, please contact me (yoon3@uwm.edu) any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e general meeting, Young Geographers Forum I & II, and mentoring session. We, the board members, are eager to meet you in the general meeting and other sessions! I appreciate all your help and support for KAGES.

Sincerely,
Hyejin Yoon, April 2021

Special Contribution I

새로운 전환기에 앞에 선 한국의 지리학: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황철수
(Chul Sue Hwang)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President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안녕하십니까 KAGES 회원 여러분. 저는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대한지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황철수입니다. KAGES 와 인연은 13년전 창립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AAG Meeting 에 참여하면서 멤버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이 10년을 넘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면 이미 그 조직은 생물과도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제 스승이셨던 류우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KAGES 는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작지만 강한 금강석과 같은 학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IJGER 이 SCOPUS 인용 학술지로 성장하고, 알찬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내는 저력이 그 발전의 분명한 흔적입니다. KAGES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지리학계와 연관이 있어 늘 고국의 지리학 소식에 궁금하실 것이기에, 본 기고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지리학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대한지리학회에서 어떤 준비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학문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의 관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시스템 안에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우선주의와 관료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게 내재되어 학문 세계와 자주 충돌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학문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리학은 학문단위의 규모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어진 여건은 근대적 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다. 다행히 지난 50여년 대한민국 지리학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고 나름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가장 성공적 학술대회로 회자되고 있는 2000년 제 29회 세계지리학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150명에 지나지 않는 대한민국 지리학과 교수가 3,000명이 넘는 해외 지리학자가 참여한 대회를 코엑스 개관 행사로 유치한 것은 솔직히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생은 직간접적으로 이 일에 수 년의 시간을 들여 봉사하였습니다.

최근 IGU 집행부는 저에게 Congress 를 유치한 지 20년이 지났으니 Regional Conference 유치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 몇 년 후라는 꼬리표를 달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지리학계 역량에 비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분명 줄어들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희생을 전제로 대규모 대회를 치러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 개인은 조직에 항상 뒤에 서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동일 선상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앞서 KAGES 성장의 배경으로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노력이 개인의 발전과 커리어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국내 지리학자의 개인적 역량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지난 20여년 지속되면서, 본인이 속한 조직을 벗어난 전체 지리학 학문 단위의 힘은 역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지리학과

지리학자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지리학자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속한 학문단위가 힘을 잃으면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약화되는 순환구조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순된 상황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류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경험으로 우리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 계량적 사고가 전세계를 휩쓸 때 국내 지리학은 이 흐름을 놓쳤습니다. 당시 국토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나라에서 계량적 모형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수단으로 강력히 요구되었지만 우리는 이 호기를 경제학과 도시계획학에 내줘야 했습니다. 1980 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인 GIS 를 한동안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고 결국 타학문 분야에 우리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2010 년 이후 빅데이터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식도 달라져 학문 세계에 요구하는 연구내용도 연구방법도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지리학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보면서 현재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학회 차원의 전략은 앞서 말한대로 개인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야 하고, 개인은 학회의 성장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편견을 떨쳐내야 합니다. 서로 성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시대적 전환기에 맞서 나가야 합니다.

KAGES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불어 닥친 시대적 전환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연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혹독할 수 있는 여건을 각오하면서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격언을 굳게 믿는 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불어 닥친 위기는 지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전환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연구에 집중할 개인과 조직에게 상당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 회원님들은 좀더 창의적이고 융합적 주제에 집중하길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의 연구방법을 연마하십시오. 전통적으로 지리학이 갖고 있는 지역과 공간은 절대 고수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만 잊지 않는다면 과감히 외연을 넓혀 나가야 현재의 위기와 전환기에서 나와 지리학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KAGES 회원 간 그리고 한국의 지리학계와 부단한 소통이 개인의 발전에 상당한 기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Special Contribution II

성공적인 영어 논문작성 방법 II: 수정에서 출간까지



장희준
(Heejun Chang)
Departmen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ersity
Editor, The Professional
Geographer

지난호에서 논문의 작성에서 투고까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호에서는 논문의 심사평을 접수한 이후, 어떻게 논문을 효과적으로 수정하여 출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논문심사 소요기간

많은 독자들이 논문제출 이후 첫번째 심사평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궁금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많은 학회지가 평균 논문 심사 기간을 웹사이트 상에 공개하여 심사소요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평균 논문 심사 기간은 편집자가 심사자에게 보내지 않고 바로 거절하는 경우 (desk rejection)도 포함하기에, 실제 논문 심사 기간은 이보다 다소 길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학회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논문심사는 대체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의학, 이공계 논문은 수주에서 한두달내 심사평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계열 논문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린다.

논문의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많은 경우 논문의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투고시 심사자 추천을 요구하는 학회지도 있다. 심사자 추천시 이해관계가 없는 (no conflict of interest) 객관적인 심사자를 추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논문에서 인용했던 저자를 추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심사자가 처음 약속한 기간보다 오래 논문을 심사하거나, 심한 경우는 심사수락을 했지만 끝내 심사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편집자는 다시 심사자를 찾아야 하기에 논문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심사평이 미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상반된 심사평이 접수된 경우, 제 3 심사자를 다시 선정하여 평가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집자는 가능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므로, 첫 심사평가를 받기 전에 편집자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6 개월 이상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편집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해 문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논문 첫 수정방향

논문심사평은 크게 바로 통과, 소폭 수정 (수정후 통과), 대폭 수정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심사후 바로 논문이 통과되는 비율은 극히 적다. 필자도 지난 20여년간 단 한번 수정없이 논문이 통과된 경험이 있다. 소폭 수정은 자료의 추가나 재분석이 없으므로 통상 한 두달 내에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다면, 편집자가 다시 기회 (second chance)를 주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하기에, 심사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심사자의 요구사항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처음 쓴소리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특히 새로운 데이터나 분석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저자 답변서와 관련하여, 요구수정 대비표를 만들어 왼쪽란에는 심사자 요구사항, 오른쪽 란에는 저자 수정사항을 대조하면서 답변서를 만든다면 추후 심사자나 편집자가 수정된 논문의 요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모든 수정요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게재불가 논문의 회생방법

게재불가 논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먼저 대폭 수정한 논문을 다시 동일한 학회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정 논문이 심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권고한다. 수정한 논문은 일단 같은 심사자에게 재심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기에, 심사자의 요구가 잘 반영된 논문은 그만큼 회생기회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지에 따라 대폭 수정된 논문의 재투고를 환영하는 경우도 있기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기 바란다), 만약 이 부분이 모호하다면, 편집자에게 문의하면 좋을 듯 하다. 두번째 방법은 수정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제출하는 것이다. 비록 다른 학회지를 겨냥하더라도 반드시 어느정도 논문을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심사자가 논문을 다시 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전 심사자의 요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논문을 재심사할 경우 오히려 더욱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편집자에게도 논문의 과거 투고 사실을 밝히며, 수정된 사항도 간략히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논문 재수정전략

만약 두번째 심사에서 다시 대폭 수정요청이 왔다면 이는 정말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논문이 올바르게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문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수정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간을 두고 꼼꼼히 논문수정 방향의 개요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즉 편집자가 논문을 거절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히 논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심사자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편집자에게 연락하여 논문의 수정방향을 의논하는 것도 권고한다. 아울러 논문의 평가 항목표나 질문이 있다면 이를 구하여 본인의 논문이 이러한 사항을 충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논문수정 과정은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간주하면 될 것 같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발견된 중요 사항을 여러 독자층에게 잘 전달하려면, 필터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심사자, 편집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연구를 잘 알릴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는 저자와 심사자간 중개역할도 하기에, 심사평가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편집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기 바란다. 아울러 논문의 심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권고한다. 심사의 룰을 아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저자의 입장이 아닌 심사자의 안목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모쪼록 지난 두 호에 걸쳐 기고한 이 글이 많은 독자들에게 영문 논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Special Contribution III COVID-19 과 2년차 박사과정의 변화된 일상



장한별
(Hanbyeol Jang)
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and
Urban Studies
Temple University

코로나로 인한 삶의 많은 변화는 미국에서 학위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일상의 변화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또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2020년 3월 16일 학교 폐쇄를 기점으로 나뉩니다. 모든 대학원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강의조교(TA)의 수업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Zoom meeting 의 수많은 검은 화면들을 바라보며 수업 설명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라인 전환 이후 대학원 대면 수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들(학술적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숙달)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코스웍에 필요한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을 했던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는 저의 연구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컨퍼런스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등록비는 감소하고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컨퍼런스 발표장에서 기존에 경험할 수 있었던 연구자 간 상호교류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일제 식민지 하 포경산업의 발전이 한국-고려의 관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현지답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여행이 제한되고 관련 시설들이 잠정 운영 중단되는 등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받은 연구비의 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대학원생들은 원격 수업 전환 이후 수업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방을 새롭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새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기존의 작은 노트북 모니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니터 구입,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구입, 자료 복사를 위한 프린터 구입 등 재정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지만, 미국인들조차 팬데믹으로 대량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역시도 충분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은 저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흑인 폭동이 발생하여 몇 주 동안 시내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과 치안 문제로 인해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며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오피스에서 생활하였는데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 업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게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학교 폐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전한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어 하루 최소 한 번 이상 주변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되었던 터라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현지답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한국, 미국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녀와서 기존의 ‘코로나 블루’도 사라졌고,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그리움도 사라졌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 시국에

한국에 다녀왔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 유학생생활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로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2020년 가을학기 학부생 등록율이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대학원 박사과정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리학과는 2021년도 가을학기 입학하는 박사과정 선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던 분들은 기존보다 축소된 선발 규모와 지원자 수의 증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유학 지원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시기를 지나 현재 미국 내에서 느리지만 순차적으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2021년 가을학기에는 미국 대학들이 제한적이거나 코로나 이전의 학교 시스템(대면 수업 부분 재개 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2022년 봄학기에는 코로나 이전의 대학원 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Special Contribution IV

COVID-19 과 유학생생활



김규식
(Kyunik Kim)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Florida State University

코로나로 온라인 생활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2020년 3월 즈음) 봄방학 이후 학교가 폐쇄되었으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상상도 못한 팬데믹과 예상과 달리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박사과정 2년 차 마지막부터 3년 차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플로리다 텔러해시(Tallahassee)에서의 지난 1년간 제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봄 방학을 기점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유학 나온 유학생들 누구나 그렇겠지만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해 꽤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잠깐의 해프닝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역시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듯 온라인 수업과 회의를 위해 해상도 낮은 랩탑의 웹캠에서 벗어나 외장 웹캠도 구입하는 등 온라인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유학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곳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했고,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미국살이 첫해에 큰길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욱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물과 휴지도 동나고 마스크도 부족했던 때였기에 혹시 모를 사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여차하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학기에 박사종합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지나간 여름 방학 동안 착실히 준비해 한 번에 시험에 통과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보자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미국 사회도 점차 적응하는지 코로나 발생 초기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았고, (비록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점차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심적으로 안정되니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지키면서 공부하자 싶어 연습하기 시작한 테니스라든지, 답답할 때면 카페에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런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자 마음 한 켠이 답답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박사종합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함을 계속 느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어찌면 코로나로 강제 격리하던 상황 덕분에, 멘탈 관리라도 잘하고자 “차라리 시험 준비에 집중하라는 것인가 보다,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구나!” 라고 최면을 걸곤 했고, 이런 자기최면 덕분에 박사종합시험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덕분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봅니다.

자기최면 외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을 꼽자면 아마 플로리다의 따스하고 화창한 겨울 날씨일 것입니다. 시험을 마무리하니 2020년 가을 학기도 끝을 보이고, 어느새 겨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오는 다른 학생들을 부러워하면서 아마 우울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로리다의 날씨를 한껏 이용하면서 기분전환을 위해 집 주변이라도 툼툼이 시간내서 산책하려 했고, 덕분에 자칫 우울해질 수 있던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미국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학회를 통해 여러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특히 스타벅스의 도시 시애틀에 가보고 싶었기에, 2021년 AAG의 온라인 미팅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Meeting 또한 관련 분야의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은 올해와 다른 새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아닌, 범죄를 걱정하는 또 다른 종류의 격리를 한동안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유학생이 남은 유학 생활을 안전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Special Contribution V

효율적 소통을 위한 툴: Compass Message Box



정지훈
(Jihoon Jung)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Washington

저는 2021년 2월 NCEAS에서 제공한 Compass Message Box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정리할 겸, 다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트레이닝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대중 (general public) 또는 다양한 청중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Compass Message Box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Issue, problems, so what, solutions, benefits. 간단히 설명하면, issue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overarching topic입니다. Problems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가 무엇을 연구할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Issue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so what은, 그래서 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타당화하는 부분이고, solutions은 그래서 내가 이 연구에서 무엇을 할지, benefits은 내 연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issue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산불을 경험할 것인데, 이는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Problems의 경우, 우린 미래의 산불활동, 삼림 관리 계획의 영향 (e.g., prescribed fire), 산불과 인간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So what은 미래에 좀 더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삼림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Solution의 경우, 다양한 기후, land cover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Benefits은 우리의 건강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삼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루한 예이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passccicomm.org/wp-content/uploads/2020/05/The-Message-Box-Workbook.pdf>. 워크샵에서 나온 내용 중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3 가지 부분을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아래에 공유합니다.

1. Distill it down to just a couple points

옆 집에 사는 이웃이 물 한잔 달라고 컵을 들고 문을 두드립니다. 정작 우리는 fire hose로 물을 부어줍니다. 사실 대중들은 많아 봐야 우리 연구에서 한, 두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갑니다. 이에 반해 우린 너무 많은 정보를 한번에 부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예쁜 그래프와 지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지, 개인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한번에 3~5개의 정보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 정책입안자, 동료연구자들은 내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 제한된 수의 결과만을 효율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 People seek affirmation, not information.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신만의 가치관을 통해 모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근래에 전 미국에서 발생한 한파의 경우,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은 이를 지구온난화가 사실일리 없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증하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도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 또는 사람들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어떤 것에 집중할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떻게 프레이밍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Be human

가장 먼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단어들 과 수치들을 무표정한 표정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제 연구의 경우에도 다양한 jargon 들을 보여줍니다. ARIMA, GARCH, case-crossover, Odds ratio,

vulnerability 다양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을 때는 질문을 안 받기 위해 더 어려운 단어들 보여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대중과의 소통보다는 뭔가 더 보여주고 싶다는 제 욕심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본 워크샵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5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 watch your words, 2) use the power of metaphor, 3) local example, 4) tell better stories, 5) engaging & smiling. 또한 I like, I wish, I wonder 같은 단어들 사용하여 대중들과의 소통에 있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근래에 들어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과의 효율적 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기에 단순한 tool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KAGES Mentoring Program

KAGES 멘토링 프로그램



조인정 (Injeong Jo)
Associate Professor
& Faculty Coordinator of the
Online MAGEo Program
(Geog.Ed.Concentration)
Dept. of Geography
Texas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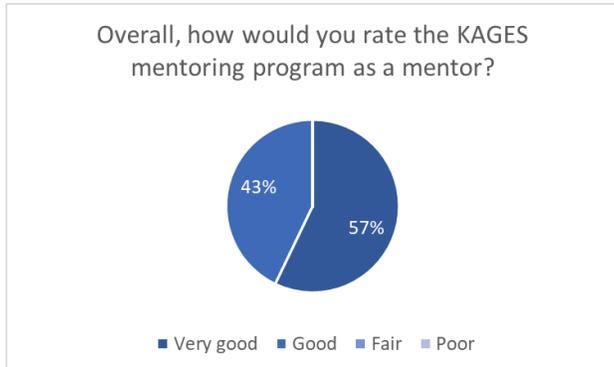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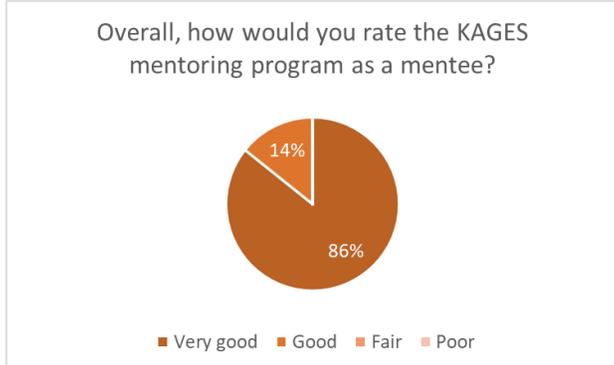
KAGES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 회원과 일반 회원 사이의 교류를 통해 학생 회원들의 유학 생활 및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매년 8-10 팀의 멘토-멘티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아홉 팀의 멘토-멘티님들께서 온라인 미팅 등의 방법을 통해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KAGES 멘토, 멘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드릴 사항은 작년까지는 매년 3월 이전에 멘토-멘티 모집, 매칭이 이루어져 AAG 학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AAG 직후에 KAGES에 신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께도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전체적인 일정을 약간 늦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멘토, 멘티 모집은 5월 중에 회원 전체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6-7월에 매칭이 된 후 대부분의 학교가 개강을 하는 8-9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중인 분들에게서는 5월 중 발송될 안내 메일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AGES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를 망설이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또는 프로그램의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회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현재 참여하고 계신 멘토, 멘티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문에는 총 여섯 명의 멘토, 일곱 명의 멘티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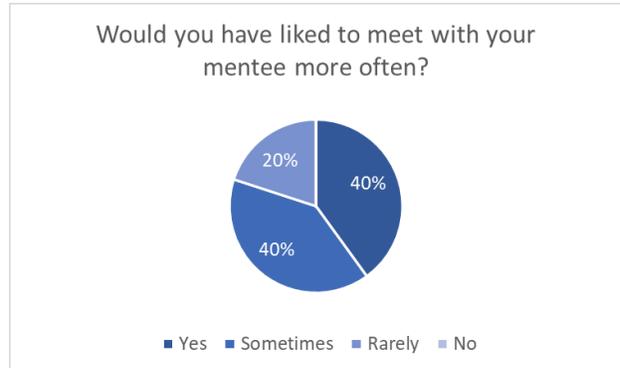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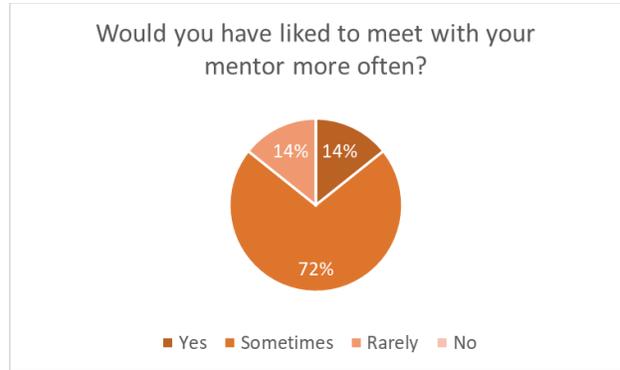
1. 전반적인 평가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멘토, 멘티님들께서 KAGES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특히 86%의 멘티님과 57%의 멘토님들께서 ‘매우 좋음’을 선택해 주셨고, 14%의 멘티님과 43%의 멘토님들께서 ‘좋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2. 만남 횟수, 시간

매칭이 이루어졌던 작년 3월부터 설문이 이루어진 12월까지 평균적으로 각 팀 당 3-5 회의 미팅을 통해 총 3-5 시간의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약 86%의 멘티, 80%의 멘토님 들께서 좀 더 자주 만나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 프로그램 효과, 유의성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멘티님들께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가 전반적인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매우 그러하다:71%; 다소 그러하다: 29%) 응답해 주셨습니다. 멘토로부터 특히 배울 수 있었던 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및 학업 계획 세우기,” “학회에서 네트워킹 하기,” “슬럼프 극복하기,” “국제학생으로서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등을 꼽아 주셨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멘토를 개인적으로 더 잘 알게 된 점,” “유학생 생활 관련 다양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된 점” 등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한편,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멘토님들께서 내년에도 기꺼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당연히 참여하겠다: 67%;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다: 33%) 응답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 “멘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점,” “주기적으로 만나되 한 번에 한 가지 토픽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눈 점” 등을 꼽아 주셨습니다.

4.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KAGES 멘토링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좀 더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일년에 1-2 회의 그룹 멘토링 시간을 갖는 것, 둘째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멘토-멘티가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 주신 2020 KAGES 멘토, 멘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누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021 년 그리고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KAGES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조인정 이사에게 (ijo@txstate.edu) 문의 주세요.

KAGES Awards & Scholarships

KAGES Outstanding Service Award

This award is a recognition of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services to KAGES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for many years. On behalf of KAGES, we like to appreciate their dedication and services to KAGES.

2021 KAGES Outstanding Service Award

- 2021 Dr.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2021 Dr. Woonsoo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KAGES also provides several scholarship award opportunities for student members. The spirit of the awards is “giving to those who will give back later.” In other words, KAGES helps graduates student succeed in their studies, and the graduate students help KAGES later as professionals. Here is brief introduction to each award. Past awardees are listed on the KAGES Website (<http://www.kages.org/season2/awardees-2/>).

KAGES Student Paper Award

The Student Paper Award aims to recognize high-quality student articles published in the fields of Geography, Geospatial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2021 KAGES Student Paper Awards are sponsored by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KGS), th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ASEA), and the Korea-America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GES). The maximum amount per awardee is \$500.

2021 KAGES Student Paper Award

- 1st prize: 박진우 Jinwoo Park (Texas A&M University)

Student Leadership Award

Students ar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to KAGES and our academic community during the academic year.

- 장한별 Hanbyeol Jang (Temple University)

Sim Travel Award

Sim Travel Award will not be available for this year as the annual meeting of AAG in 2021 occurs virtually for COVID-19.

Special thanks to 2021 KAGES scholarship awards review committee;

- Dr. Youngsang Kwon (권영상), University of Memphis
- Dr. Yoo Min Park (박유민), East Carolina University
- Dr. Bumseok Chun (전범석), Texas Southern University
- Dr. Young Rae Choi (최영래),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Dr. Taehee Hwang (황태희),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2021 KAGES scholarship awards were sponsored by KGS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 <http://www.kgeography.or.kr/>).

IJGER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Editor-in-Chief
Dr. Woonsoo Choi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JGER) is an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Korea-America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G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KAGES fosters scientific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A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As part of its mission, KAGES launched IJGER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 between its membe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KAGES has the ultimate authority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IJGER. IJGER

welcomes contributions that fit our aims and scope from anywhere by anyone in the world.

Submit your manuscript to IJGER 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the editor of IJGER, Dr. Woonsup Choi (choiw@uwm.edu).

IJGER Early Career Paper Award

This award supports research of the members of KAGES who are either graduate students or early career scholars. The award is sponsored by Dr. Hyejin Yoon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Total amount of \$900 will be awarded to three early scholars who publish their research in IJGER for three years from 2021.

2021 IJGER Early Career Paper Award

- 이영호 Youngho Lee (Kyung Hee University)

KAGES 2021 Annual Meeting

이번 2021년 KAGES 총회는 AAG Seattle Annual Meeting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KAGES 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지난 1년 간 KAGES 활동 보고, 2) 학생회원들에게 장학금 수여, 3) KAGES 임원 선출선거 및 회칙 수정, 4) 경품 추첨 등입니다. KAGES 총회를 비롯하여, KAGES에서 개최하는 Young Korean Geographers Forum I & II, 멘토링의 자세한 일정과 zoom 미팅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2021년 4월 9일 금요일 (한국 기준 4월 10일 토요일)

- **Young Korean Geographers Forum I:** 3:05-4:20pm (PDT) | 7:05 -8:20 am (KST), AAG Virtual Room 16
- **Young Korean Geographers Forum II** :4:40-5:25pm (PDT) | 8:40 -9:25 am (KST), AAG Virtual Room 16
- **KAGES Mentoring Session:** 5:30-6:20pm (PDT) | 9:30 -10:20 am (KST), Zoom Meeting Room (ID: 978 6377 1554, Passcode: 2021)
- **KAGES General Meeting:** 6:30-7:30pm (PDT) | 10:30 -11:30 am (KST), Zoom Meeting Room (ID: 978 6377 1554, Passcode: 2021)

올 2021년 KAGES 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 KAGES General Meeting is sponsored by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Join KAGES!

KAGES의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셨나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support@kage.org로 보내주세요.

회원 가입비 납부 역시 Paypal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ages.org/season2/join-membership/>). 2021-2022년 회원 자격은 2022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embers' News

Student Group: Future for Women Geographers (FWG)

FWG is a student-working group that supports women in geography by promoting women students' involvement and helping their future career development. For that, FWG hosts regular round tables to network women geographers and provide our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openly share their research and career-based concerns. Any KAGES student members interested in our mission to contribute to a more inclusive environment in KAGES can join us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Click the link](#)).

For further information on our vision, membership, or beyond, please contact th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Sojung Huh (s_h540@txstate.edu).

FWG는 지리학계에서 활동하는 해외 여성 연구자들을 지지하고, 네트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학생 소모임입니다. 본 모임의 목적은 여성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연구와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커리어 개발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회원 정규모임과 현직 여성지리학자 초청 좌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다양한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FWG에 관심이 있는 KAGES 학생회원들은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출 해주시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서 링크](#)). FWG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허소정 학생회원 (s_h540@txstate.edu)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cholarly Accomplishments

- **김정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ublication:** Kim, J., & Kwan, M.-P. (2021). Assessment of sociodemographic disparities in environmental

exposure might be erroneous due to neighborhood effect averaging: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inequality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195, 110519. <https://doi.org/10.1016/j.envres.2020.110519>;

Kim, J., & Kwan, M.-P. (2021). An Examination of People's Privacy Concerns, Perceptions of Social Benefits, and Acceptance of COVID-19 Mitigation Measures That Harness Location Inform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South Korea. *ISP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10(1), 25. <https://doi.org/10.3390/ijgi10010025>.

- **반효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Grant:** 2021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Promoting Awareness. (March 2021~November 2021). With Dr. Hyo Hyun Sung (PI), Jungmin Lee (Co-PI), Soochul Park (Co-PI), Ahyoung Kim (Co-PI), Hyun Namgoong (Co-PI), Jisoo Kim (Co-PI), Okgyung Yoon (Co-PI), Eunmi Jang (Co-PI), **Hyowon Ban (Co-PI)**, Gunhak Lee (Co-PI), Moonbo Sim (Co-PI), Hoyoon Kang (Co-PI), and Hyunwook Lee (Co-PI). Funded b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South Korea (approximately \$ 191,600).
- **윤혜진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Certificate:** Received a Certificate in Online and Blended Teaching from UW-Milwaukee.
- **조인정 (Texas State University): Award:** 2020 Award for Excellence in Online Teaching, Texas State University.
-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ublication:** Choi, W. 2020. "Drought," In *Oxford Bibliographies in Geography*. Ed. Barney War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OBO/9780199874002-0215; **Professional Appointment:** appointed as associate editor of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Certificate:** Received a Certificate in Online and Blended Teaching from UW-Milwaukee.
- **홍정은 (University of West Georgia): Publications:** Gong, H. J., and J. E. Hong. 2021. Does postsecondary education attainment matter in community service engagement?: Evidence from across 18 OECD countries. *Education Sciences* 11 (3): 96. Available at: <https://www.mdpi.com/2227-7102/11/3/96>.

- Support for students developing their career successfull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 Support for members developing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s
- Promoting interactions between South-Korea and USA in geospati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Bylaws

- The KAGES Bylaws was revised and approved by the KAGES Board Members on Friday, April 10, 2015 and the revised version is accessible in PDF format from the following link: KAGES Bylaws. (<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15/04/KAGES-Bylaws.pdf>)

Organization

- KAGES was founded on 11/17/2008 with eight founding board members:

Dr. Gi-Choul Ahn	Dr. Yeong-Hyun Kim
Dr. Heejun Chang	Dr. Sun Yurp Park
Dr. Jinmu Choi	Dr. Jeong Chang Seong
Dr. Jongnam Choi	Dr. Changjoo Kim

Officers (July 2020 – June 2021)

President: Dr. Hyejin Yoon
 Vice President: Dr. Injeong Jo
 Secretary: Dr. Misun Hur
 Treasurer: Dr. Hosuk Lee

2020-2021 Board members

Scholarship Management: Dr. Misun Hur
 IJGER Editor-in-chief: Dr. Woonsup Choi
 Research Committee: Dr. Kyung In Huh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 Committee: Dr. Sanglim Yoo and Dr. Ho-Seop Cha
 Career Development Committee: Dr. Injeong Jo
 Legal Committee: Dr. Hyejin Yoon
 Technical Support: Dr. Hyowon Ban, Dr. Sanglim Yoo, Dr. Hyejin Yoon
 International Relations: Dr. Ho-Seop Cha and Dr. Jeon-Young Kang
 Student Board Member & Website Management: Hanbyeol Jang
 General Board Member: Dr. Jieun Lee

Newsletter editor

Dr. Jieun Lee

Membership Benefits

- Members can actively involve in opportunities by KAGES to network with your professional peers for the fields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

About KAGES

Miss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mission of KAGES is to foster the following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 Members are eligible for a variety of KAGES awards and can apply grants by KAGES.
- Members have a voting right for KAGES elections.
- Members can access members-only information at KAGES website.
- Each KAGES member is also to become a member for KSEA-Georgia Chapter during KAGES membership.
- For renewal of membership, or join the KAGES, please visit the KAGES website at <http://www.kages.org> or email at support@kages.org
Twitter: [@KagesOfficial](https://twitter.com/KagesOfficial)